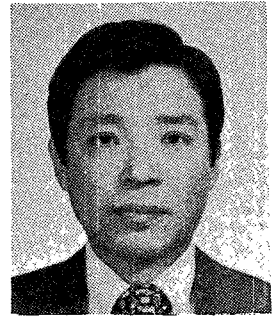




# '86의 成功은 '88의 成功



金 亨 徹

〈本協會報編輯委員〉  
〈環境廳計劃調整局長〉

「88올림픽의 서울開催決定」

이는 정녕 興奮과 歡喜요, 自負와 榮光의 快報였다. 그래서 우리는 當時의 어려움속에서도 끝없이 펼쳐지는 未來의 들녘에 쏟아져 내리는 햇살을 얼굴 아니 온몸으로 받으며 달려나가는 開拓者의 決意를 다졌고, 끊임없이 힘쓰고 있지 않는가?

「아시안게임의 서울開催」

이는 自負와 榮光의 自己確認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86 행사를 구체적인 것으로 받아들였고 거기에 더욱 힘주어 다지고 있지 않는가?

86의 성공은 88의 성공.

이는 텔레비전 字幕宣傳文句다. 그것은 그러나 宣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틀림없는 眞實이요 眞理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요, 집 잘 지키는 개가 새끼도 잘 낳는 격이다.

問題는 어떻게 해야 「86의 成功」을 確實하게 하느냐에 있다.

保安, 弘報, 宿食등을 誠實·緻密하게 對處하는 行政, 體系化 되고 科學化된 競技進行, 親切하고 好感이 드는 商去來, 自然스럽고 記憶으로 간직하고 싶은 快適한 旅路, 깨끗하고 정돈된 環境등등이 그것을 確實하게 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벌써부터 각 行政機關과 有關團體들은 밤낮없는 情熱로 일에 沒入하고 있지 않는가?

「86의 成功」을 위하여 우리는 무언가 지금보다 더욱 積極的이고 進就的인 姿勢를 취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

行政機關과 有關團體中心의 活動과 準備뿐만 아니라 國民全體의 次元에서 보람과 參與를 通한 一體感을 갖도록 하는 어떤 動機가 부여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이러한 國際的인 행사가 政府間의 행사나 選手들 만의 행사가 아니요 主權國 全國民이 主人이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行事を 통하여 經濟分野는 물론 國民의 意識水準과 道德心性에도 크나큰 變化를 가져왔음을 過去의 外國의 경험을 미루어 잘 알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86의 成功」을 「88의 成功」으로 이어감은 勿論, 祖國의 先進化를 具體化 하는 기반으로 해야 하겠기 때문이다.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은 한마디로 스포츠라는 媒體를 통하여 가지는 人類의 大合唱이요, 祝宴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浪漫과 生動感이 共存하고 體力과 雰圍氣가 混融된다. 따라서 스포츠는 이 大合唱을 造成하는 가장 주된 要素이다.

스포츠, 그것은 젊은이의 것이다. 끓어 오르는 피, 티는 듯한 情熱, 無限한 挑戰을 계속하는 霸氣는 젊은이의 專有物이다. 社會가, 國家가 젊은이를 아끼고 사랑하고 눈여겨 보살피는 것은 이들이 血氣와 情熱과 霸氣를 가지고 自己를 갈고 닦아서 장래 社會를 國家를 짊어지는 主役이 되기 때문이다.

“그 國家의 將來를 점치려면 그 나라의 靑少年을 보라”고 그 누가 說破하지 않았던가?

스포츠와 靑少年,

그것은 不可分의 關係이다. 스포츠를 생각하면서 젊고 발랄한 靑少年을 忘却할 수 있으며 靑少年을 대하면서 스포츠를 對話의 主題로 하지 않는다면 그런 만남은 중천 만남이다. 하물며 靑少年이 스포츠를 모른다면, 靑少年이 스포츠를 앓는다면 그것은 이미 靑少年이랄 수 있겠는가? 누군가 이런 것을 “죽기전의 송장”이라고 매도하지 않았던가?

스포츠는 그에 알맞는 環境을 필요로 한다. 싱싱함과 다소 빛발이 든 공기의 촉감, 싱그러운 녹색이 휘드러 웃는 듯한 수풀, 옥양목 한쪽을 힘껏 향해 던지면 당장에 코발트 빛으로 물들어 버릴듯이 파랗게 유혹하는 하늘, 靑少年은 스포츠를 즐기되 이러한 環境속에서 햇살 사이를 누비고 뛰고 달리고 싶어한다.

煤煙속에서 달려보라고 하자. 냄새나는 시궁창에서 헤엄치라고 하자. 매캐한 연기 그늘속에서 蹴球을 즐기라고 하자. 騾音속에서 사이클경기를 하라고 하자. 젊은 靑少年은 反抗할 것이고, 늙은 靑少年은 幻覺劑를 愛用하고자 할 것이다.

環境은 스포츠라는 媒體에만 주요한 것이 아니고 人類라는 合唱團員에게도 必要하다. 더욱이 韓國을 찾아온 團員에게는 意識的·無意識的 關心事項이 됨직하다.

스포츠와 靑少年과 環境.

이는 86 成功을 위한 國民의 積極的인 參與와 一體感 造成的 動機賦與項目으로서 폭넓게 檢討해 보아야 할 과제가 아니겠는가?

「86의 成功」은 物量作戰이어서는 아니되고 또한 그럴수도 없다. 經濟的(?)으로 「86의 成功」을 確實하게 하는 길의 捷徑은 스포츠와 靑少年 그리고 環境을 올바른 方向으로 이끌어지도록 하는 國民의 自發的인 運動이 誘發되도록 國家가 어떠한 動機를 提供함으로써 國民全體가 보람과 主人意識을 갖도록 해야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各國은 Greece 大會 以後 계속 人類의 大會唱을 계속하였으며(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將來에도 人類가 滅亡하지 않는 限 持續·擴大될 것이다.

過去의 경험으로 보아 이러한 스포츠와 靑少年 그리고 環境을 連繫한 國民運動을 明白히 찾아낼 수는 없으나 비슷한 예는 많았다. 가까이는 日本 東京올림픽에서의 國民清潔運動, 淸淨運動등이다.

비록 뒤에는 政治的으로 번질하고 말았지만 히틀러 유겐트도 靑少年과 스포츠·올림픽을 연계한 좋은 예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당시는 汚染問題는 거의 없었으니까 環境과 連繫시킬 必要가 없었지만... \*

